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슈카르트 그룹

## 8월 ‘오케스트라’ 퍼포먼스

오는 9월8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전시작품이 광주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종장로 ‘우디방(광주우체국)’에서 제작된다. 광주비엔날레는 30일 “2006광주비엔날레 마지막 장(아시아 섹션) 참여작가인 슈카르트 그룹(세르비아)이 오는 8월 초순 종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광주의 오케스트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의 오케스트라’는 ‘우디방’을 배경으로 시민들과 함께 노래를 작사·작곡, 합창한 뒤 그 전 과정을 영상에 담아 전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작업이다. 이들이 ‘우디방’을 주제로 하는 이유는 광주 시민들의 오랜 만남의 장소로서 뚜렷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간 프로위티와 죠르주 밭마조비치 등 3명으로 구성된 슈카르트 그룹은 ‘광주의 오케스트라’ 영상물을 맡았던 9월 8일 비엔날레 제4전시관에서 선보인다. 같은 날 시민들이 참가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자신들이 세르비아에서 제작한 ‘Belgrade choir HORKEKAST’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비엔날레는 슈카르트의 작업을 돋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시민 50여명을 모집한다.

지난 1990년 결성된 슈카르트 그룹은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소통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퍼포먼스,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롤리티브 아티스트 그룹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슈카르트 그룹이 지난해 서울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린 ‘새로운 과거’전에서 선보인 세르비아 벨그레이드 도심 퍼포먼스.

## 송화자 가야금 연주회

### 내일 빛고을 국악전수관

송화자 가야금연주회가 다음달 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송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들려줄 예정이다.

국립국악고와 추계예대·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한 송씨는 전국국악연대회 기악부문 대상(1997), 우륵문화제 가야금 경연대회 대상(1999)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남원시립국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진철씨가 복 장단을 맡는다.

062-682-44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컨설팅의 평가 분석 전문가의 자산관리·자산증식  
광주·전남권토지구함  
Tel : 062)973-9174, 016-757-8800

**첨단·수완·신창**  
상업용지 택지 상가건물 증가분석

거래상담 실시가능

상업용부지·골프연습장·주유·충전소·공장·병원·복지시설 등 투자용물건, 성장성 갖춘 저렴한 물건 과학적인 분석상담

• 대형 토지·건물·상가 건설 신축 중개 •

첨단지구 상업용지 주유소

24평 27평 51평 567평 110평 300평 1300평 15평 600평 16평 650평 35평 103평 111평 115평 180평 200평 250평 기타 350평 129평 300평 기타

수완택지지개발지구 광주 지역 녹지 사업부지

이주주택지, 협의안도인백지 주유소부지 890평 900평 기타

생활대체용지 꿀풀연습장부지 4300평 123천평

신창택지지개발지구 물류 공장지 200평 2800평 4900평

상업용지 140평, 균생 122평, 80평

우량임야 실가동 2차선 2500평

첨단지구 상업용지 주유소

24평 27평 51평 567평 110평 300평 1300평 15평 600평 16평 650평 35평 103평 111평 115평 180평 200평 250평 기타 350평 129평 300평 기타

수완택지지개발지구 광주 지역 녹지 사업부지

이주주택지, 협의안도인백지 주유소부지 890평 900평 기타

생활대체용지 꿀풀연습장부지 4300평 123천평

신창택지지개발지구 물류 공장지 200평 2800평 4900평

상업용지 140평, 균생 122평, 80평

우량임야 실가동 2차선 2500평

첨단지구 A 급 상가

5평 8평 15평 20평 25평 35평 68평 기타

건물매도 첨단지구 A 급 상가

임대 45평 50평 기타

장성·담양권 토지 건구함

• 광주·전남권 토지 건구함 •

-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분석 -

부자유망물건 다량 보유(전면판권 ~ 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

## ‘블록버스터 전시’ 관객 몰린다



지난 20일부터 피카소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시립미술관에는 월드컵 열풍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월드컵 때문일까? 해마다 여름방학 시즌에 열리던 블록버스터 전시가 5월로 그 시기를 부쩍 앞당겼다. 지난 20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위대한 세기 : 피카소’ 전과 지난 4일 개막한 대전시립미술관의 ‘조르주 루오’ 전이 예년보다 한 발짝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관객들의 관심을 모이고 있다.

◆ 20세기 미술사의 하이라이트, 피카소展 = ‘20세기 미술의 거장 위대한 화가’로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1881~1973). 1881년

스페인 말라가(Malaga)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생전에 무려 5만여 점의 작품을 남긴 데서 알 수 있듯이, 생전에 성공을 거둔 몇 안 되는 작가로 기억된다. 파리의 애경사진을 처음으로 활용하고, 피카소의 생전 모습을 담았던 사진작가 브로샤이(1899~1984)가 “제복을 입은 기사는 운전하는 자동차, 멋진 개, 대저택, 노르망디의 작은 성 부아줄루, 그리고 금고와 아름다운 여자친구까지 가졌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는 ‘성공한 예술가’의 전형으로 꼽힌다.

그의 작업은 흔히 청색시대와 징미시대, 입체파 시대와 1차 대전 직후 1920년대의 신고전주의 시대, ‘케르니카’를 탄생시킨 인체의 변형 시대,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 말기 예 이르는 시기로 분류된다.

◆ 대전시립미술관은 60여 점의 대형 유화 작품과 종이 작품 30여 점, 그리고 판화 50여 점 등 모두 140여 점이 소개되고 있다.

이번 전시가 서울에서만 50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2004년)의 기록을 뛰어넘을지도 관심거리다. 주최측에 따르면 개막 후 이를 동안 1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하니 새로운 기록이 탄생될 가능성성이 커 보인다. 9월 3일까지,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7천원, 어린이 5천원, 7세 미만 및 65세 이상은 무료

세계 각지에 소장된 그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얼굴’ 등 채색화 84점, 판화 141점 등 작품의 규모로만 따진다면 ‘피카소’ 전보다 더 알차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루오의 작품은 크게 광대, 가난, 여인, 신약성경, 미제례례(죽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성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어린 시절 지난하게 살던 루오

는 범부리 싸구려 서커스를 즐겨 보며 광대의 삶을 부려워했다. 유년기에 접한 광대의 이미지가 너무도 강했던 탓

일까? 루오는 평생 동안 광대에 천착하게 되었고, 자유의 상징이자 고난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했다. 지난 역사 그를 읽는 주요한 코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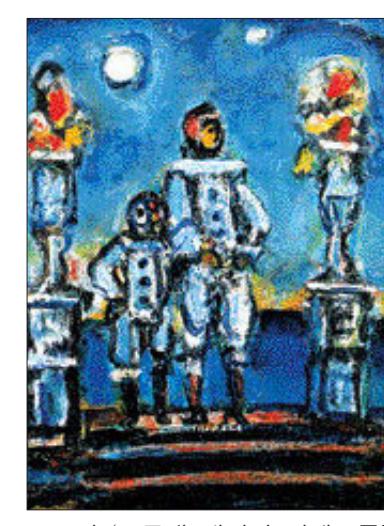
그러나 역시 루오의 작업은 예수가 등장하는 신약성경으로 귀결된다. “루오는 수난 받는 예수에게서 안식과 위안을 받았다”는 이지호대전시립미술관의 말처럼 전제적으로 어두운색조의 그의 그림이 평화롭게 다가오는 깨닭은 바로 이 때문으로 보인다.

‘루오’ 전은 모처럼 지역에서 만나는 블록버스터 전시라는 점도 관심거리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샤갈’ 전이 열렸지만, 서울에 이어 열린 ‘후속편’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대전시립미술관의 이번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8월 27일까지, 성인 1만원, 청소년 8천원, 초등학생 6천원, 문의 (042)602-3224.

/윤동희 미술전문기자 ceohee02@nate.com

### 6·7월 월드컵 시즌 고려 개막 앞당겨

#### 세기의 예술가 피카소·루오 인기 실감



루오의 ‘푸른색 배경의 빠에로들’(1943년경). 광대는 루오가 평생 동안 즐겨 그린 소재였다.

다. 문의 (02)724-2900.

◆ 광대·가난·여인·성경의 감동, 루오展= 20세기 미술의 거장이자 종교화가로 이름난 루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는 루오 재단 소장품 200여 점은 물론 풍피두센터 등

■ 화순 만연사서 새음반 발표회 갖는 범 능 스님

## “사람들 어루만지는 노래 부르고 싶어”

‘광주출정가’와 ‘혁명광주’ ‘꽃아 꽃아’의 작곡가 ‘정세현’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범능’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14년 세월이다.

수덕사에서 출가 후 대전 도심 포교당에 머물다 화순으로 거처를 옮긴 범능 스님이 음반 ‘무소의 뿐처럼’을 내고 6월 3일 오후 8시 화순 만연사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 ‘광주출정가’ ‘꽃아 꽃아’ 작곡

열정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던 ‘정세현’의 모습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지금 절집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인연’이지요”라는 간단한 말로 답했다. 5남매 중 4명의 형제가 불가에 귀의하고 있는 집안 분위기도 그가 말하는 ‘인연’의 한 부분이다.

“요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괴폐해진 것 같아요. 공황이라고 할까요. 자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정서들이 필요 한 세상이죠. 마음을 추스려주고 어루만져주는 음악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제 노래가 밖에서 마음 닦는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시와 스님들 말씀에 가락 붙여

범능 스님은 시와 스님들의 말씀에 곡을 부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음반에는 도종환·김용택·고규태씨의 시와 융산 스님의 글에 가락을 붙였다.

“다른 분들의 시를 읽다 보면 지금, 내 마음의 흐름과 같은 글귀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운율적 흐름을 갖고 있는 시들이 끌립니다. 시(詩)를 한자로 풀어 보면 ‘절집안의 언어’라는 뜻이잖아요.

불교의 ‘경(經)’도 어떤 의미에서는 글



오는 6월3일 만연사에서 발표회를 갖는 범능 스님은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한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에 가락을 암한 거구요.”

수록곡들은 빠르게 흘러가는 요즘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천천히 듣고 있으면 깊은 울림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요가나 명상하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 깊은 울림 마음 편안해지는 노래

이번 음악회에는 시인 김용택, 도종환, 박문옥(작곡가)씨와 국악실내악단 황도제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오후7시까지 절에 도착하면 절집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할 수 있다.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죠. 찰밥도 나눠 먹고, 노래도 나누고”

061-374-2112, www.buleum.pe.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이정심씨 네번째 수필집 ‘푸른장미’

꽃을 보고 설레는 여심(女心)에는 나의

가 없다. 예술을 넘긴 수필은 이정심씨가 자신의 네 번째 수필집 ‘푸른장미’(건우사 펴낸)를 냈다.

책에 수록된 60여편의 수필은 저자가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글쓰기 관련 강의를 하던 지난 3년 동안 교내 장미



공원을 지나면서 느낀 생각들을 담고 있다. 장미의 계절인 5월, 이 책을 들고 운동장에 뿐인 조선대 장미공원을 거닐어보는 것은 어떨까.

저자는 “3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깊은 이들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쓰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저자는 이 책으로 올해 제3회 국제펜클럽 광주펜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아주 특별한 제안

### 독점상권의 상업지역